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신문’ 특별강연, 30일 임시정부기념관서 개최

- 30일(수) 15시, 최기영 전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초청 강연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의 길을 열다’ 강연프로그램의 세 번째 순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신문’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오는 30일(수)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정원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년 하반기 특별전시(8.11~’27.1.17) <쌈, 독립신문>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는 최기영 전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신문』의 관계 ▲1919년 8월 창간된 상해 『독립신문』 ▲1943년 6월 중경판 『독립신문』 ▲1946년 12월 환국숙간 『독립신문』 등을 통해 독립신문 자체가 독립운동의 한 줄기였다는 점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선전활동의 선두에 섰던 『독립신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 기관지 역할을 수행했던 과정과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격동의 사건들을 생생하게 살펴본다.

강연 참여는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임시정부기념관은 강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퀴즈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강병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직무대행은 “이번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기록한 유산이자 겨레의 눈이었던 독립신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의 길을 열다’의 네 번째 특별강연도 연내 진행할 예정이다. <끝>

붙임. 제3강 특별강연 포스터

담당 부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관리과	책임자	과 장	강병구 (02-772-8731)
		담당자	사무관	한철호 (02-772-8732)
			주무관	홍성은 (02-772-8735)

獨立新聞

최기영 교수 특별강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신문》

2026. 9. 30.(수) 15:00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B1 의정원홀



특별강연(3강) 사전 신청 및 이벤트(무료)

-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26.(토)
- 신청방법 :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신청결과 : 당점자에게는 현장에서 소정의 사은품 제공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